춘추전국시대의 상황과 제자백가의 발생

1. 발생배경

춘추전국 :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, 학문적으로 가장 자유
춘추 : 周나라 평왕이 洛邑으로 도읍을 옮긴 B·C 770년부터
전국 : 韓趙魏三家分晉 - B·C 403년
진시황 통일 B·C 221년

문벌 해체 가속화 ---- 그 결과 학문이 지배집단의 독점을 벗어나 일반화

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비교

춘 추 시 대	전 국 시 대
* 禮·信 존중	* 禮·信에 대한 언급 적음
* 주왕실 약해졌지만 천자를 종주로	* 왕으로 부르지 않음
* 천자의 제사 참여와 조공을 강조	* 제사와 조공 거부
* 왕족이나 씨족에 대한 논의가 많음	* 언급 거의 없음

(1) 사회경제적 배경
1) 제도상 모순

周 - 봉건제 --- 노예제 : 대부분 同姓,
┌─ 초기 : 血의 원리 : 천자·公·卿·大夫·家臣까지 대부분 친인척 : 天下·國·家
│ ┌尊尊 : 군신관계 : 천자-제후, 제후-대부, 대부-가신
│ └親親 : 부자관계 : 上同
└─ 후기 : 力의 원리

* 봉건제 : 농경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만든 강력한 가족제를 국가에 확대 적용한 제도
부자 중심의 종적 윤리를 국가에 그대로 적용한 제도

* 주나라 - 기원전 1100년 무렵 殷 무너뜨리고 황하 유역 차지
천자 - 중앙 (종가집) : 주변 - 친척이나 인척 - 제후
제후는 작은 종가 - 다시 친척, 인척 나누어 줌(대부)
통치 체계 전체가 가족관계 (주 초 71개 제후국 - 동성 제후 55, 이성 제후 16)
장자 상속 - 혈연에 기초한 통치방식 - '종법제'
가족관계 : 왕실과 제후국 사이 지배 피지배 관계
나라 튼튼 위해서는 당연히 : 효제관계 강조

* 『대학』 修身齊家治國平天下

* 그러나 시간 갈수록 피의 관계 -- 힘의 관계로 : 하극상

2) 생산력 변화

* 쇠 : 美金과 惡金
* 소, 관개, 비료 - 황무지 손쉽게 개간
* 농업기술의 고도화 -- 농업·수공업·상업의 분업
* 점유개념 -- 소유개념으로

3) 신분제 변화

* 특히 노예와 같았던 民의 신분 변화
* 점유 - 소유 : 전쟁 - 토지와 생산수단인 노동력 쟁탈이 목적
* 전쟁 : 민 수탈 가중 (전쟁, 부역, 세금)
* 민의 대응 (1) 소극적 - 도망
(2) 적극적 - 폭동
獸惡其網 民惡其上 (周語, 中)
* 유민 - 다음에 설명할 신흥지주 의탁 (세금 적게 걷거나 소작제) -- 민의 지위 상승
* 신흥지주 -- 유민 흡수 힘 키움
* 신흥지주 계층의 등장은 곧 구 귀족의 몰락을 의미

(2) 문화적 배경

1) 새로운 지식인의 등장
* 주 지식인 -- 귀족과 귀족의 보조자인 士뿐
* 학술 사상 - 관이 독점 cf) 제자백가 이전 -- 관의 저작일 뿐
* 춘추전국의 혼란 -- 귀족 붕괴 -- 士 몰락 (유랑하며 지식 팔거나, 장례와 제례)
* 신흥 지식인에 흡수, 백성들 속으로 -- 지식 일반화
* 이러한 변화 : 구제도 옹호, 구제도 비판, 구제도 반대, 일체 제도 부정

2) 혼란이 더 많은 인재 필요
* 중국 영토 큼 -- 전쟁 장기화 -- 무인보다 정치·경제·사회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핵심 정책을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가는 유능한 지식인 필요

* 무차별 경쟁 -- 재주만 있으면 서민도 발탁 -- 학문열기 -- 학문 보편화

3) 문자의 발달
* 한자 기본 상형 -- 복잡
* 지식의 효율적 보급 -- 문자 간소화 -- 지식의 보편화 계기

4) 교통의 발달
* 전쟁 일상화 -- 교통 발달
* 당시 전차전 -- 전국 후반부터 한나라 기병과 보병으로 바뀜
* 교통 발달 -- 신속한 문화 보급

5) 사상과 언론의 자유
* 주초 『예기』 「王制」: 옳지 못한 道로 민중을 미혹시키는 자, 괴상한 기구·복장·기술로 민중에게 의혹을 주는자, 거짓되고 온순하지 못한 자는 모두 죽인다고 기록
* 주초 강력한 군주 -- 춘추전국 왕권 약화
* 중앙집권 붕괴 : 제후 중심의 지방분권화 -- 지방문화 독자적으로 형성

2. 제자백가의 분류와 역할

1) 제자백가의 분류

* 제자백가 : 학파별로 특색있는 사상 체계 -- 동아시아의 사상적 뿌리

* 司馬談의 論六家要旨 : 각 학파 명칭 붙이고 그 사상의 특징과 차별성을 서술

분 류	사상 내용
음양가	吉凶의 징조를 중시하였으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이 많았다. 그러나 그들이 순서를 정한 사계절의 변화는 뒤섞을 수 없다.
유 가	학문의 범위는 넓었지만 요점을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며 애는 썼지만 한 일이 적었다. 하지만 그들이 주장한 임금과 신하·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예와 부부·형제 사이의 차별은 바꿀 수가 없다.
묵 가	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검소와 절약을 강조하였다.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따를 수는 없지만 생산을 중시하고 절약을 강조한 점은 없앨 수가 없다.
법 가	사람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엄격해서 온정은 없었지만 임금과 신하·윗 사람과 아래 사람의 질서를 잡은 일은 고칠 수가 없다.
명 가	사람들을 명칭에 구속시켰기 때문에 진실성을 잃어버렸다. 하지만 명과 실의 관계를 바로 잡은 점은 주의깊게 보지 않을 수 없다.
도덕가	정신을 집중시켜 자연에 적응할 것을 주장하고 만물의 요구를 충족시키라고 하였다. 다른 사상들의 장점을 받아들여 시간에 따라 움직이고 사물에 따라 변한다. 풍속을 세우고 일을 처리하는 데 마땅하지 않음이 없으며, 요점이 간단하고 시행하기는 쉬워서 힘을 덜 들여도 공이 많다.

* 사마담 분류 특징 : (1) 집단 스스로 이름 붙인 묵가 제외하면 학파 명칭 붙인 점. : 도덕가는 나중에 도가로 됨
(2) 도가를 가장 높이 평가

* 두 번째 분류 : 유흠, -- 사마담 분류 + 종횡가·잡가·농가·소설가의 10가
* 반고 :『한서』「예문지」에 유흠 분류 기초로 〈9가자류〉 기록 :

학 파	구 성	유 래	대표적 사상가
유 가	53가	교육관직	공자,맹자,순자
도 가	37가	문서관리직	노자,장자,양주
음 양 가	21가	천문관직	추연
법 가	12가	법리관직	상앙,한비자
명 가	7가	의례관직	공손룡, 등석
묵 가	6가	사당관리직	묵자
종 횡 가	12가	외교관직	소진, 장의
잡 가	20가	국정자문직	『여씨춘추』
농 가	9가	농업관리직	허행

* 이 분류의 특징 : 각 학파 유래 주나라 관직에서 찾은 점

공자와 논어 - 사람다움의 철학

1. 공자의 생애와 논어

1) 공자의 삶(기원 전 551, 552? - 479)

* 이름 : 구(丘) - 언덕, 니구산, 자는 중니(仲尼) -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
* 노나라 창평향 추읍(지금 곡부) - 주공 자손에게 준 땅 - 꿈에 주공 보고 싶어 함
* 중국문화의 출발이자 주류, 동아시아에 큰 영향
* 한대 신격화 - 왕처럼 받들어짐 -- (원대, 청대 호칭)

* 인간 공자로 이해 (인간인 점, 인문정신에 위대성) - 시대 아파하고 고민한 데
  춘추전국의 혼란 : 朝聞道夕死可矣의 희망

  - 위대한 보통 사람 : 상식 저편 아닌 상식 속에서 진리 찾음
* 사마천 인간으로 : 野合而生 : 숙량흘과 안징재 - 사생아
  당나라 때 장수절의 변명 [史記正義]

* 3세 父沒 : 가난 - 母 무당, 무녀, 맹인 설
* 젊어서 창고 관리와 정부의 가축을 돌보는 직책
* 여러 나라 돌아다님
  35세 - 51세 : 계손씨 팔일무보고 떠나 익지 않은 생쌀 챙겨 돌아 옴

* 대사구(법무장관) : 소정묘, 제나라 악공과 무희
  56세 - 68세 :
  - 68세 고향 제자 기르고 문헌 정리

* 은자들 비난
* 아들, 아끼는 제자, 부인, 채택 안됨(72임금) -- 불행한 삶

* 20세 무렵 제자 : 자로 - 죽이러 왔다가 제자됨
  - 3천 - 72인 - 공문십철 : 공자학단 - 최초의 사립학교
* 불우했지만 복받은 삶
* 공자 사후 삼년상 : 전국으로 - 중국문화의 뿌리
* 역사 속에서 다양한 평가 : 5·4신문화운동 - '공가점타도(孔家店打倒)'
  문화대혁명 - '비림비공(批林批孔)'
  -- 오늘날은 다시 신유가 사상, 공자아카데미로 부활

2) 논어

* 공자의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책 -- * 의논하여 편찬
* 송나라 때 사서가 됨

* 지금 모습으로 다듬어진 것은 한나라 때
  제나라 + 노나라 + 공자의 옛 집 벽 = 지금의『논어』
* 20편 : 각 편의 이름은 처음 나오는 문장의 앞머리 두 세 글자
* 막스베버 : 논어 - 인디안 추장의 말
  함축,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의 보고 : '살신성인', '극기복례'
* 과거 우리 선조 지식인들 논어 수십번 , 수백번
* 고전이니 전통이니 - 낡은 것 아님, 오래된 것 - 그렇기 때문에 힘

2. 공자의 중심 사상 - 인

*『논어』에는 '인'자가 106번
* 어질다, benevolence, - 사람답다.
  仁者 人也(중용), 仁也者 人也(맹자)

* 공자는 한 번도 '인'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음 : 실천
* '인(仁)' : 人 + 二 - 두 사람 사이의 관계 cf) 인간, 페르소나

* 인본주의 :「선진(先進)」편 공자와 자로(子路)의 대화 - 사람의 삶
  공자 이전 관심 - 자연 또는 귀신 -- 문제의 중심을 인간으로 :
  소크라테스와 유사
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敢問死 曰未知生 焉知死 [선진」편

* 그 해답 -- 인 : '사람다움' -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방법 : 道

* 사람 4단계 소인 - 군자 - 인인 - 성인
  군자도 인하지 못한 경우 있지만 소인이면서 인한 경우 없음
  博施濟衆 聖

* 리인 :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
  -- 예수 , 죄없는 자
  -- 사리사욕 없기 때문에 진정 미워할 수도, 진정 사랑할 수도

* 헌문 : 仁者必有勇 勇者不必有仁
  -- 서양속담 : 진정한 용기 - 우리 삶 반성
  ∴ 仁者無敵

* 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

* 仁者安仁 知者利仁(탐하다)

*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

* 위령공 :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

* 當仁 不讓於師(衛靈公)

*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(八佾)
-- 사람답지 못한 사람 : 개같다, 돼지 같다
-- 일제하 친일, 나치에 협조한 사상가나 예술가

* 인 실천의 근본은 효제와 忠恕 - 증자(46세 차이 제자) - 증석과 증원

忠 : 中 + 心, 患 : 中 + 中 + 心
恕 : 如 + 心
섭공과의 대화 - 양

3. 답게하는 정치 - 정명사상, 덕치와 예치

자로와 공자의 대화 :
*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事不成則禮樂不興 禮樂不興則刑罰不中 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
* 선생님 : 우리학교의 예
교권 - 선생 호칭도 값싸짐 : 사모님

* 君君臣臣父父子子(顔淵)

*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

* 政者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(顔淵)

*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(子路)

* 도둑 걱정
* '수기'가 기본
* 족식, 족병, 민신지

4. 역사관 - 춘추사관

* 춘추필법
鄭伯克段于焉 - 오생
* 춘추정필
* 자치통감,

* 동사강목 : 이적은 정통으로 볼 수 없음 (촉이 정통)
* 征伐, 현자는 官과 卒, 부족한 사람은 卒만, 간신은 死
  아들 아무개를 태자로 세웠다. 왕으로 즉위하고
  태자 아무개를 세우다 왕이라 자칭하고

5. 교육사상

* 주나라 초기 귀족 신분은 세습 - 그러나 춘추전국 시기 신흥 지주계층 등장
* 공자 신분에 상관 없이 일정한 예를 갖추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가르침
* 공자는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학교를 세우고 평등교육과 보통교육을 실현.
* 6경과 6예(六藝) * 평등교육, 보통교육
* 군자 : 유위군자에서 유덕군자로 - 궁극에는 성인지향
* 君子不器
* 爲己之學
* 감성에 바탕을 둔 교육 : 시경과 예기 강조 : 진항과 백어의 대화
* 계발식 교육
* 실천 중심의 교육

5. 공자사상의 의미

* 공자는 남긴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고전에 대한 정리 작업 : 6경 편찬
* 상고주의(尙古主義)와 술이부작(述而不作)의 정신
* 온고이지신(溫故而知新)의 전통
* 공자를 통해 중국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.
* 역사적으로 봉건제사회의 전제군주제를 합리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이용
* 그러나 공자사상의 가치는 인문정신의 극치라는 점
* 서구 계몽사상에도 영향
*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실천 통해 역사 속에서 쉼 없이 이어짐
* 자기 만족 이외에 달리 보상 없음 - 사마천 사기
* 그저 인간다움의 실현이었을 뿐
  cf) 어떤 일이 할 때 그 일이 내게 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를 따지지 말고, 오직 옳으냐 그르냐만을 따지라는 것이 공자의 생각
* 공자사상에는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가 없음 - 보상 없는 세계관
* 다만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가 있을 뿐